

번호 17-8

제 목	국문	인간복제·배아복제에 대한 전문가단체 의견조사 결과 분석: 미국과 영국의 의견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문	Analysis on Survey Results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Opinions Concerning on Human and Embryonic Cloning: Comparative Study to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성란, 이인영 <sup>1)</sup> , 손명세 <sup>2)</sup> 연세대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sup>1)</sup> ,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sup>2)</sup>			
	영문	Sung lan Yi, In Young Lee <sup>1)</sup> , Mongsei Sohn <sup>2)</sup>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Medical College of Yonsei University <sup>1)</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ege of Yonsei University <sup>2)</sup>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 년 11 월				

**1. 연구 목적**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윤리적·법적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절대적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생명공학 기술의 허용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령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서 인간복제와 배아복제에 대한 법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전문가 집단의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간복제·배아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 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조사결과와 미국·영국의 의견조사 결과를 상호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설문지 조사: 국내의 의견 조사는 2000년 9월-10월동안 총54개 의·과학계, 법·윤리학계, 종교·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인간복제의 안전윤리 입법제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 응답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수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2. 문헌고찰: 미국과 영국의 의견조사 내용은 미국의 생명윤리국가자문위원회(NBAC) 1998년 인간복제 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단체 및 전문가 단체에 보낸 '인간핵치환 복제기술 연구에 관한 조사연구'문헌과, 영국의 The Human Genetic Advisory Commission과 Embryology Authority가 보건장관에게 1998년 12월에 제출한 보고서Cloning Issues in Reproduction, Science and Medicine의 내용 중 부록3. 'Analysis of responses to the consultation document'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검토하고자 한다.

### 3. 연구 결과

미국은 32개의 과학계 및 전문가 단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대부분 자손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연구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와 반대로 인간핵치환복제기술이 기초발생학연구나 새로운 세포치료연구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법률의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영국은 194개의 답변서 중 인간개체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응답자의 80%가 반대하였고, 그와 반대로 55%만이 인간핵치환복제기술이 유용한 과학적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4일 미만의 배아를 핵치환기술연구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44%만이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설문결과는 인간개체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핵치환 인간복제기술의 이용에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지만 이 기술의 연구목적의 이용을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배아에 대한 문제가 미국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의 입장은 총54개 의·과학계, 법·윤리학회, 종교·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인간복제의 안전윤리 입법제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설문지를 발송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미국과 영국의 설문조사 결과와 핵치환복제기술이용에 대한 허용여부와 허용범위, 배아복제의 허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비교할 것이다.

### 4. 고찰

인간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한 선진국들의 논의 과정과 법제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결정된 내용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에 중심을 준 법제정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명공학 관련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하나로서 전문가 집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